



이상의 함평군수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함평 미래 지역 발전 계획안을 논의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 민·관 투자유치 강화 지역경제 '새바람' 불어넣는다

**민선8기 2주년 이상의 함평군수 미래성장 분야 신규 사업 발굴 공공기관 유치 지역소멸 대응 테마공원 조성 등 일자리 창출 빛그린산단 금호타이어 유치 협의**

최근 이상의 함평군수가 민선 8기 2주년 주요성과·비전 보고회에서 '환골탈태' 하는 완전히 새로운 함평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활발한 국·도비 확보 활동과 적극적인 민·관 투자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내륙·해안 관광자원 균형개발로 문화관광메카로 발돋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미래성장 실현 시동

함평군은 2030 중장기 발전계획, 관광종합계획, 먹거리 전략 종합계획 수립 등 분야별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청사진을 마련함과 동시에 함평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을 발표하고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공간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등 비전실현을 위한 개발사업을 구체화했다.

함평군은 지난해 9월 전남도와 함께 1조7100억 원 규모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비전사업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함평군 공간 구조를 3개축(해양생태, 산악녹지, 미래성장)으로 나누고 공간 구조별 특성에 부합한 신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확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2조 8744억 원 규모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공간개발 전략'을 현실화하고 있다.

### ●공공기관 유치 인구감소 대응

함평군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안전교육원을 신규 유치하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과학개발부 이전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 등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함평군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정부 신규사업으로 확정돼 오는 2028년 개원하며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원(자연생태공원 내)에 건립된다.

군은 2024년 1월 '교통안전교육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도



이상의 함평군수.

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원 건립을 목표로 공동 노력하고 교통안전교육원 건립부지 확보와 함께 기타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임직원 3000명, 전국 52개 조직, 교통안전·교육·방송·운전면허·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교통안전 교육센터가 들어오면 공단 임직

원 교육은 물론 경찰청 소속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시행하는 교육시설과 교통안전 체험 등 체험시설, 트라우마센터 등 치유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 ●청년 인력 유인 산업생태계 조성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2009년 9월30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승인 및 지정 고시돼 함평군 월야면과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일대에 조성하는 광주·전남 공공 국가산업단지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407만㎡ 부지에 총사업비 6520억원을 들여 2014년 10월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기반시설공사(264만㎡)를 지난 2020년에 완료하고 2단계 기반시설공사(142만㎡)를 오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빛그린산단 2단계 함평 구역은 2021년 12월 금호타이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이전부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빛그린산단 내 금호타이어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산업도

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는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발전축진형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2020년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군은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500억(국비 83억 원) 원을 투입, 총 32만㎡ 부지에 농공단지 진입로, 테마공원, 음식특화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2015년 지역개발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축진형'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나뉘며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3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1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만 치열한 지자체 간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다"며 "남은 2년이 향후 함평 발전을 좌우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현안 사업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함평군,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선생 추모식 거행

### 애국정신 기려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호남을 대표하는 함평출신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의 추모식을 지난달 28일 신광면 구봉마을에서 거행했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추모식에는 임만규 함평부군수, 윤영량 함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족과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은 한희 및 분향, 주요약력소개, 추모사,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1886년 10월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구봉마을에서 태어난 일강 선생은 일본 메이지대학을 졸업한 후 중국으로 망명해 신항청년단,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활동 등을 주도하며 일평생을 항일 투쟁에 바쳤던 독립운동가다.

일강 선생은 만석군 재산을 처분해 독



지난달 28일 함평군 신광면 구봉마을에서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 추모식이 열렸다.

함평군 제공

립운동 자금으로 모두 헌납하시고 임시정부에서 군무장, 재무장, 국무위원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다 지난 1934년 격무로 48세에 생을 마감했으며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 받았다.

임만규 부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일강

선생이 남긴 항일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 군민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며 "오늘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의 공적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가슴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함평 손불면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



함평군손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백형갑)는 지난달 26일과 27일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나고 있는 지역 내 소외 이웃들에게 선풍기, 여름이불세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준비한 선풍기 44대와 여름이불세트 40개를 전달했다.

손불면 지사협 백형갑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임수영 손불면장은 "이번 민간 주도 특화사업을 통해 외롭고 소외된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마음 뿌듯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깨끗한 새 이불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손불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